

국민 절반 “환경문제 중 대기질 개선 가장 시급”

KEI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 ... 기후변화 피해·쓰레기 급증 폐해도 지적 미세플라스틱 생태계 파괴 우려 표시...머그컵 등 환경친화적 행동 실천을

우리나라 국민 열명 중 네명은 '대기질 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발표한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008명 가운데 46.5%는 여러 환경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문으로 '대기질(미세먼지·오존) 개선'을 선택했다.

대기질 개선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인 2018년(33.6%)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후변화 피해(폭염·폭설·한파·집중호우 등)가 21.9%,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매립지·냄새)가 8.8%로 뒤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선택지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및 건강 피해는 3.8%를 차지하며 최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환경 피해 유발에 따른 처벌 강화'

(20.7%), '환경규제의 기준 강화'(14.3%), '국민 기업 등 개별 주체의 자발적인 노력'(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2.08점으로, 여러 부문 중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62점으로, 2018년 대비 0.1점 상승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중 71.9%가 전반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있다'고 응답했으며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또 '기후변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라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개인보다는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및 '10년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가 81.9%를 차지하면서 이미 국민 대부분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편리함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67.9%가 '불편을 감수하고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들이 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해서 하는 행동으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 선택', '장바구니 사용'의 실천율이 가장 높았다. '커피 전문점 방문 시 머그컵·텀블러 이용'은 실천율

이 56.8%로 다소 낮았다.

환경 보전의 책임 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일반 국민'이 각각 39.2%, 35.3%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2018년에 비해 개별 주체의 자발적인 노력보다는 중앙행정의 노력과 처벌·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국민의 생각이 바뀐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석 기자·연합뉴스

아동시설 1만5000명 안전·관리보호 상태 조사

복지부, 인권교육·종사자 학대 등 12개 항목 점검

보건복지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만5000명의 안전과 권리보호 상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아동학대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호아동 전원을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는 11월 까지 약 5개월간 아동생활시설 870여개소를 방문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이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을 대면해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학대 의심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아동을 시설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한다.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한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고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된다.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가 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연합뉴스



“국립공원 무단 출입하지 마세요”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관리를 실시한다. 집중 단속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20일까지이며, 흡연, 음주, 출입금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무등산국립공원공관동부사무소 제공>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남구 다음달 7일까지 접수

광주시 남구는 14일 “2020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3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남구에 등록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주민이다.

교부 품목은 전동침대·보행차·기립 훈련기 등 고가 장비부터 음성 시계·시각신호 표시기·진동시계·음식음료 섭취용 보조기기·헤드폰 청취 증폭기·문

자판독기·목욕 의자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31가지다.

신청 접수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 결정은 9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우선 순위는 장애 정도의 심각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자, 재가 장애인, 해당 사업으로 보

조기기를 교부 받은 지 오래된 사람 등 순이다.

지난해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 받거나, 그 이전에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민 생활보장제도 이행 증진 서구, ‘2020 복지학당’ 운영

광주시 서구는 14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이행증진을 위해 ‘2020 복지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학당은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급여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복지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 지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복지학당은 지난해 복지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코자 온라인 교육시스템(홈페이지) 기반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에서는 실직, 폐업, 질병 등 갑작스런 가정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분담형식으로 설명되며, 복지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수급(권)자의 의무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복지학당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서구청 홈페이지 복지학당 팝업존을 클릭하면 되며, QR코드를 통해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또 서구에서 운영중인 8개 SNS채널(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송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채운계·랩프 등 수은 함유 제품 친환경적 폐기 관련 기준 마련

채운계·랩프 등 수은이 함유된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수은폐기물은 앞으로 수은함유폐기물(폐전지 등 수은을 포함한 폐제품),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 및 화합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로 세분화돼 관리된다.

환경부는 특히 채운계·기업계·랩프 등 수은 함유 폐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같은 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세부 처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옹니(하수·정수 처리 후 생긴 침전물)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 포함된 경우 지정폐기물로 관리해 왔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